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40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6월 27일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광주, '극한 폭우' 일상화… 빗물 빠져나갈 길이 없다

하루에 426.4㎜ 쏟아지는데
배수·저류 시설 등 크게 부족
신안동·백운광장 등 상습 침수
해마다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
빗물터널 조성에 7000억 필요
곳곳에 소규모 저류지 만들어야

폭우로 부서진 산동교 교각 지난 17일부터 내린 극한 폭우로 인해 광주시 북구 동림동 옛 산동교 일부가 파손되어 위험하게 놓여 있다. 옛 산동교는 1934년 건설돼 일제강점기 당시 광주와 장성을 연결하는 신작로(현 국도 1호선)의 일부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는 지역 최초였다. 6·25 전쟁 당시에는 군·경 합동부대가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인 전적지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기후변화로 시간당 80㎜ 이상 집중호우가 일상화되는 데도 광주지역 배수·저류 시설 등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2·3·6·7·9면〉

광주에서 426.4㎜달하는 극한호우가 하룻만에 쏟아지면서 막대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양산한 이유가 배수 시스템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광주천이 범람위기까지 수위가 오르면서 도심 하수관로의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도심으로 역류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20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하루동안 광주에 426.4㎜의 비가 쏟아졌다. 당일 시간당 강수량이 가장 높았던 곳은 광주시 남구로 오전 11시18분께 80㎜의 비가 집중됐다. 이날 오후 4시 26분께 광주시 북구에 76.2㎜, 오전11시 22분 조선대 인근에는 75.5㎜의 비가 한시간 동안 내렸다.

빗물의 양은 하수 처리 능력을 초과했고 북구 신안교, 산동교, 하신마을, 서구 양동 태평교, 남구 백운광장 등 광주도심 곳곳에서 침수가 발생했다.

이들 지역은 대표적인 상습침수 장소로 해마다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빗물이 하수관로를 통해 광주천으로 빠져 나가야하는데 광주천이 만수위가 된 탓에 빠져나가지 못한 빗물이 역류해 침수피해를 낳고 있다. 남구는 백운광장 일대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자 2년 전 하수관 관로를 더 큰 것으로 변경했지만, 역부족이다.

광주시는 배수 취약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대심도 빗물터널' 조성을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광주천 지하 30m 이상을 굴착해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물길을 여는 방안이다. 2020년 서울 양천구에 조성된 대심도 빗물터널이 모델이다. 지하 40m 깊이에 지름 10m 규모로 설치된 빗물터널은 최대 32만 t의 빗물을 저장해 시간당 100㎜로 내리는 비를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천에 대심도 빗물터널 조성에는 최소 7000억원 가량이 필요해 구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광주시와 북구는 북구지역에 2028년까지 우수저류시설(5만2400㎥) 3곳을 설치하려고 708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 협의 절차 이행과 대규모 공사라는 점에서 단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후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사업이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다수의 저류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고, 중·장기적 대책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은 "광주의 경우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침수 취약지역에는 학교 운동장 지하 등에 소규모 저류지를 만들어 대비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사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한 호우가 뉴노멀이 된 상황에서 도시 인프라 등 대응 시설 설계 용량도 기존 용량을 벗어나 200년에 한 번 발생할 재해를 기준으로 넉넉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기초지자체·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4곳(극락천, 서방천, 운암동 공구의 거리, 계림동)를 지정해 침수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등 폭우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빠른 선포 추진"

이재명 대통령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최근 계속된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2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라는 주문과 함께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으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비로 인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진숙 지명 철회 강선우 임명할 듯

우상호 정무수석 밝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수석은 야권에서 이 후보자와 함께 주요 사퇴 대상으로 지목해 온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하지 않았다.

사실상 강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가지 종합해 이런 결정을 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극한 폭우 속 빛난 시민 영웅들 ▶7면
KIA 네일 "후반기엔 승운 좀 따라주길" ▶18면

광복 80년 - 소록도에 새겨진 일제 상흔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폭우 뒤 폭염…광주·전남 33도

일부 지역 열대야

극한 폭우가 지나간 광주·전남에서 다시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광주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북태평양고기압 가장 자리에 들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돼 구름 많고 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번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의 21일 아침최저기온은 24~26도, 낮최고기온은 29~33도로 예상되며, 22일 아침최저기온은 23~25도, 낮최고기온은 30~34도로 예보됐다.

뜨거운 공기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21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광주·전남에는 5~60㎜가, 22일에는 전남동부내륙 지역에 5~60㎜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고, 장시간 농작업 등을 자제해야 한다"며 "실내외 작업장, 논·밭, 도로 등에서는 체감온도가 더 높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The new EQE SUV
누구도 예상못한 아우라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사고수리 062)942-7200 / 일반정비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4M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1(도심: 4.3,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 445, 공차중량(kg) : 2540, 배터리 용량(kWh) : 90.56
· EQE 500 4M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1(도심: 4.2,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 449,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9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